

37과 성길 자를 택하라(우호철목사님)

사용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사로 부름받은 저희들 주님앞에 맡은바 책임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까지 주님앞에 온전히 교사로 또 온전한 그리스도 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더욱 주님 말씀만 의지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으로 주님의 일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우리 교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동안 주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하루 동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저희에게 나아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런 귀한 지체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시간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주님 함께 하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몇일 전만 해도 더웠었는데요. 아침에 보닌깐 굉장이 쌀쌀 하더라고요.

복장부터가 조금 달라지신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24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4절 부터 15절 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 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 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이 말씀을 하게된 배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설교 었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게된 배경 그리고 왜 이런 각오를..자신의 각오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필역을 하게됐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우리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자신의 각오를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을 목전에 둔 이 여호수아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4장2-13절까지의 내용을 꼭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 부터 시작되어져서 그리고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한번 설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운데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걸 설명하시면서 우상숭배를 하나님이외에 다른것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어떤 종교를 하나의 종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요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그쵸?

어떤 종교적인 억압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대히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쵸?

14절의 말씀 좀 더 살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첫번째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실하다 하는 말은요 온전하다 그리고 순수하다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자기의 생각과 다른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정 이 뜻에는 견고한, 확실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확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유혹이나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숭배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정말 순수하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를 지금 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요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밑에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도 섬기라고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며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온전하고 그리고 확고한 마음으로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촉구하고 있는거예요

신앙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어서는 중립은 없어요.

자 열왕기하 17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33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쵸?

지금 섞이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때까지 두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도 바알도

그 둘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느때까지 두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겠느냐? 그쵸?

야고보서 1장에도요 두 마음을 품은것은 정함이 없다고 그런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가지 중에서 한가지

예 맞습니다.

다른 신들중에 하나님은 어떤 한 신으로 계신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양쪽 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중립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 하느니라]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자리에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것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것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다고 하는 것 이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섞일 수 없는것 처럼 하나님과 그 이외에 다른 것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후6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은요 다른 많은 신들 가운데 어떤 한 신의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천지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그쵸?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 섬길자를 택하라고 오늘날 너희 섬길자를 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말씀 하시는데

성경에요 선택하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생활 가운데도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 또한 선택한 본인 자신이 지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의 과정에 직접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일로 말미암아 그 결과 또한 각 사람들의 몫으로 돌려 주시는 데요

맨처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할 기로에 서있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았죠?

자기 아내 하와의 말, 하나님의 말보다 생명과 대신 선악과를 선택했던 아담의 선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우르에서 부터 출발했던, 함께 갈대아 우를를 나왔던 조카 롯, 그 조카 롯도 선택의 기로에 서있을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때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을 쫓아 나왔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은 쫓아 나왔던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롯은 자기 목자들의 말에 더 귀 기울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떠나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롯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롯을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가고

결국 자기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성이 불 가운데 멸망 받을 때 심판 받을 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자신은 자신의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아모리 족속의 조상이 되어버리는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끼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결국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만 쫓아 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으로 더욱 점점점점 더욱 온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또 그릇된 선택을 한 분이 또 나옵니다.

팔족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으로 바꾼.. 누구죠??

에서

애써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 이제 조금 웃으시네...

에서의 선택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았어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그걸 저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요 오늘 우리 여호수아 24장 말씀가지고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오늘날 너희 섬길자를 택하라 나와 우리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말씀하신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어땠어요?

예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다는건 분명합니다.그쵸?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꿨던 민족입니다. 그쵸?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찾아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찌어다 심히 떨찌어다 두려워할찌어다 여호와와 말이니라]

민족이 어느 민족이예요 이스라엘이예요

불과 몇일전에 홍해 바다를 갈라서 홍해바다를 마른땅처럼 건넜던 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삶 가운데 그들 민족 가운데 항상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켜어지고 없어질 우상으로 바뀌어서 그런일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예 좋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십시오.

호언장담했죠? 그 선택의 결과가 2000년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갚아 주셨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판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이 이 선택이 얼마나 잘 못 된것인지는 후회를 했지만요.

하지만 이 유다는 또 한 번의 그릇된 길 잘못되어진 길의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잘못 되어진 선택의 연속이었어요. 유다의 선택은 시작은 그렇지 않았지만 마지막의 모습은 그랬단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주의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선택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사람들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분명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가운데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계속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게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각사람 각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
미암아

그리고 우리 각자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야 될지 아니면
나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될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는 것을 발견하
게 됩니다.

아까 아브라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쵸?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영원
토록 영광가운데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신겁니다.

그리고 롯하고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삶은 산 사람이 있습니다.

롯

이 롯은요 모압 여인이예요 그쵸?

근데 이 모압 여인이였던 이 롯.

이방여인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
만 이 롯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롯의 선택의 결과였습니
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메달려 있었던 한 강도의 선택 또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요 평생토록 평생토록 좋은일 착한일이라고는 해본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십자가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그 순간

누가복음 23장 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4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의 선택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되는

우리 생활가운데도요 이런 선택의 순간이 계속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촉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여호수아 24장 돌아가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 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오늘날 택하는데 그 앞서서 여호와만 섬기라고 촉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말

씀 후에 너희들이 선택하라 오늘날 택하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이 섬기다의 원어적인 의미에는요 노동하다 봉사하다 경배하다 라는 이 세가지 뜻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일해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봉사해야 할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경배하는 것도 섬기는 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될지 분명히 이 말씀 이 단어 하나에도 그 내용이 함축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신앙의 중심이 어렸을 적에는요

나이가 어렸을 적이 아니고요

구원받고난 이후에 신앙이 어렸을 적에는 신앙의 중심이 나와 내 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점점점점 자라면서 신앙의 중심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점점점점 중심이 옮겨가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 더욱 힘쓰고 항상 마음이 온통 거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온통 마음이 주님의 일에 가있는 사람들.

상당히 분위기가 무거운데요.. 한가지 질문 좀 해볼게요.

혹시 결혼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고요.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분들도 이자리에 계시닌간

결혼하신 분들에게만 여쭙볼게요. 아직 결혼 안하신 분들은 대답 못하실 테닌간

결혼하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정말 사랑한다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있는것을 아마 느껴보셨을 겁니다.

아닌척하시는거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회사가서 일을 하는데 근데 온통 마음은 이따 저녁에 만날 그분생각하고 있어.

웃으시는 분들있어요. 경험이 있는거예요.

아니면 이상한거예요 이거 당연한거예요.

왜냐면요 사랑하면요 내 마음이 가있거든요.

그러면요 온통 생각도 거기 가 있어요.

힘들어도요 오늘 회사에서 정말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상사한테 여기저기 불려서 혼나고 다녔어요

그래도 어때요?

이따가 저녁에 만날 그 분 생각만 하면 힘이나

저만 그랬나보네요

오늘 레포가 형성이 안됩니다. 그럴쥬??

고맙습니다.

정말요 주님일에 힘쓰고 있고 온통 거기 가있어요

그러면요 주님으로 부터 말미암아 주님일 하는데 힘들고 어려워

예 괜찮습니다. 주님 힘 주시거든요

나의 힘의 근원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온통 나의 사랑이 거기 가있어요 그럴쥬?

그 사람은요 정말 힘 있게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님일에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윗도 그러셨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요

정말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는 조금 맛본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자식간의 사랑 그리고 형제자매간의 사랑 조금 맛봤습니다.

그거가지고도 나의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힘이 생겼다면

정말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의 증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부터 말미암는 그 힘은 주님일 하는데 넘치도록 더 해주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요 주님이, 주하나님, 주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이런말씀 굉장히 많아요

이사야서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2장

이사야서 12장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선지자만 이랬겠어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앞에서 본을 보여주셨던 그 모든 분들의 그 마음에 그 사랑은 온통 주님께만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맡기신 일에 정말 충성을 다해서 주님께 일에 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시대에 그 일을 바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사야선지자 사람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이사야선지자에게 맡기셨고 또 사도시대에 사도들에게 맡기신 것처럼

또 우리시대에는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주님만 섬겨야지 되는것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것은요 선택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나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섬기는 것 예 이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쵸?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섬깁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안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런데 한가지 좀 더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여호수아 24장 보겠습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6절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 섬기는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예요 그쵸?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 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갔습니까?

실제요 여호수아 뒤에 있는 성경이 뭐죠?

예 사사기 1장 1절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이스라엘 마음이 이러했습니다.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지금 누구에게 묻고있어요?

예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은 하나님께로 향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으련만 여호수아 뒤에 사사시대에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사사기 맨 마지막장 맨 마지막절

사사기는요 처음과 끝이 완전히 달라요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더라]

중심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시 자기로 돌아가버렸어요

하나님께로 가 있던 중심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예 하나님만 섬기는 것 오직 주만 섬기는 것 이것은 하루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속해야지 되는 일입니다.

지켜야될 것을 분명 우리에게 교훈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건요 여호수아때만 있었던것이 아니고요 모세때도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1장에도 보면 모세가 죽기전에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찾아볼까요?

신명기 31장 27절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굳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뻔하다는거예요

함께해도 하나님 저버리고 니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는데 나없으면 어찌하겠는냐?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것을 미리보고 죽음 앞에서 다시한번 간곡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모세의 모습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은요 다른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내 자신의 마음은 수시로 변해요 그렇죠?

마음을 지키는 것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각오했어요

몇일이나 가요?

정말 우리 마음을 지키기를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고

그리고 그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각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니까요

여호수아가 그래 너희들 각오 잘했다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9절 부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여호수아가 촉구했던 그 말씀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강권했던 그 말씀들을 그 당시에는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오랜세월 지나면서 결국 그 마음이 점점 점점 변해갔습니다.

중요한것은요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하나님께로 향했던 자기의 마음을 지켰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후대 사람들은 점점점점 변해갔습니다

사사기시대 350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와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바로 그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만 하나님앞에 잘 살고자 이자리에 와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나만 잘살아 보겠다고 이 자리에 와 계신분들이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와 우리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예 각오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그걸로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책임이 하나님이 더해주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 주님 오실때까지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시기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사들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주님의 일을 예비하는 사람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님을 온전히 더 섬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희생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의 빛을 쫓고 그리고 그 사랑의 빛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
지금 주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9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가게신 하나님을 섬기
게 못하겠느냐]

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할때 당
연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
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악인은요. 악인은 자기의 꾀를 좇으며 자기의 꾀로 말미암아 죄인의 길에 섭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만한 자리에 앉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악인의 길이에요

반대로 복있는 자의 길은 어떠한지 아시죠?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게 의인의 길입니다. 복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주님앞에 해야할 일 있어야될 자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에 의지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일 것이고, 그리고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것도 하나님
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써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체하지 않고 이야기 합니다.

오늘날 너희는 오늘날 성길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요 더 생각해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의 간증

예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영혼들 앞에 이 본을 보이는 사람들로써 마땅히 갖추어야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우리교사들이 마땅히 품어야될 말씀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이 해야할 각오라고 생각합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시간이 다 되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에 불러 사용하여주심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습으로 저희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모든 상황들 가운데 온전히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나아오는 어린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시간, 또한 능력 그리고 모든 상황들 가운데 온전히 주님 섬기는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이 주님앞에 찬양과 감사드리는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생활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과 저희생각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 또한 많은 일정 가운데 주님 께만 의탁합니다.

주님 이 교사들 부름받아 주님 일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맡겨주신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드리며 살아가 수 있도록 저희의 생활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욱 풍성히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